

주간농업·농촌동향 2010 한·미 식물검역회의 협상 타결

2010.03.22. 미래정책연구소

□ 개요

- 국립식물검역원은 3.9~12일 미국(오레곤주 포틀랜드)에서 한·미 식물검역회의를 개최함.
- 그 결과, 국산 감귤과 사과가 금년산부터 처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.
- * 국산 감귤은 지난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을 제외한 45개주(州)로 수출이 허용되었으나, 2002년 감귤게양병이 검출되어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음.

□ 감귤

- 우리 측은 감귤게양병이 과실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수출허용을 요구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용함.
- 양국은 앞으로 종전과 같은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, '소독 및 수출 검사'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고, 미국 내 입법절차를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
- * '02년 이전 미국 수출조건 : 감귤게양병 무병지구 지정·등록, 박테리오파아 지테스트 및 미국검역관 현지검역, 5개주 반입 제한 등
- 앞으로 우리 교민이 주로 거주하는 LA, 뉴욕 등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- * 2002년 캘리포니아(LA) 등 5개주를 제외한 45개주에 1,600톤 수출

□ 사과

- 국산 사과는 그동안 한·미 양국이 수출검역요건에는 합의하였으나 소독시설 승인절차 등 '실행약정(Work plan)'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출이 불가능하였음.
-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동 약정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

금년산부터는 미국 수출이 가능해짐.

- 국립식물검역원은 우선 수출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출 선과장 등록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.

□ 기타

- 감귤에 이어 국산 토마토,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건을 조속히 확정하여 고시하고, 호접란의 수출검역요건 개선도 추진키로 함.
- 또한, 국산 배, 밤의 미국 수출검사를 위해 우리 측이 초청하는 미국 검역관 수를 축소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도 양측이 합의
- * 2009년 미국 검역관 13명을 초청하였으나, 향후 7명 수준으로 조정
- 미국 측은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수입허용, 감자의 수입허용지역 확대, 양벚 및 오렌지에 대한 현행 수입검역 요건 개선 등을 요청
- 이에 대해 한국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험 관리방안 및 수입검역요건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,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.